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커리큘럼 연구

한현정(Hyun-Jung Han), 송재용(Jae-Yong Song), 이승민(Seung-Min Lee),
김병준(Byeong-Joon Kim), 홍상규(Sang-Gyu Hong), 서정욱(Jeong-Wook Seo)

-----< 목 차 >-----

초록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1. 최고위과정의 운영 현황 조사
 - 2. 설문조사
- III.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의 종류와 운영
- IV.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특성과 운영
 - 1.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목적과 설치 배경
 - 2.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교과과정
 - 3.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운영
- V.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 1. 교육과정 일반에 대한 의견
 - 2. 교육 강좌에 대한 의견
 - 3. 과정의 활동에 대한 의견
 - 4. 개선 요망 사항
- VI.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발전 방향과 전망
 - 1. 문헌지식정보의 중요성
 - 2. 최고위 과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
 - 3.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
 - 4. 본 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 5. 과정을 마친 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
- VII. 고찰
 - 1. 최고위과정의 종류, 정의 및 목적
 - 2. 최고위 과정의 현황

3. 최고위 과정의 진화
4. 문헌정보 최고위과정의 차별성
5. 교과목 편성에 대한 제언
6. 프로그램의 다양성

VIII. 결론

IX. 참고문헌

초 록

국내 최초로 개설된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헌지식정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및 바람직한 운영 방법 등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식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특히 고급지식정보의 선별과 활용은 현대 전문가, 경영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지식 정보를 생산, 활용, 공유하는 것은 학자 뿐 아니라 기업 경영자 등 현대 지식사회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제 1 기 과정에 참여한 70 명 중 설문에 응답한 27 명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문헌검색 등의 학습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을 과정 참여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희망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문헌정보, 문화 과학예술, 경영학 등에 대한 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습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강의학습에 추가하여 조별 학습, 방문 학습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글쓰기 논문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추가되는 것도 필요하고 조별 작성하는 졸업 논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별모임, 동아리 모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과정을 마친 후에도 이런 활동이 지속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문헌지식정보 분야에 특화된 동아리, 지식 나눔 모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정기적인 조찬모임 등을 통해서 과정 모임을 이어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균형있는 강의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아울러 과정을 종료한 후에도 계속 모임을 이어가는 것이 지식정보 사회의 학습 방법이자 미래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키워드; 최고경영자 과정, 문헌지식, 지식정보, 정보 공유, 정보 접근권

I. 서론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또는 최고위과정 등으로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신의 경영이론의 교수와 산학협동을 주요 목적으로 실용적인 학문분야에 대한 비학위 과정으로 개설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4; 전병준 2006) 목적 및 내용은 현실 업무에서 겪게 되는 최근 문제점과 추세에 대한 개괄적 리뷰나 분석, 앞으로의 방향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에 지도자급 인사와의 토론 그리고 정보공유, 친목, 유대관계를 통한 인맥형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병준 2006; 박주연 2007)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의 혁명과 함께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김용근 2004; Yook 2008). 지식의 생성과 혁신을 담당하는 교육의 역할 그리고 독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해두 2000; 변우열 2003) 그 중에서도 고급지식정보의 선별과 활용은 현대 전문인, 경영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형태의 학술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서비스하는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활용하고, 전자저널, 서지데이터베이스, 그 밖의 웹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용근 2004)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Advanced Program for Bibliograph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BKI)은 문헌지식정보를 교육 주제로 하여 2010년 9월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 서울대학교 2011). 문헌지식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식정보의 보존과 유통 및 창출 기능을 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고전과 최첨단 지식정보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개설되었다. 또한 질 높은 국내외 문헌지식정보의 계보를 섭렵하고 새로운 지평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상호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진작시키고, 지식정보의 국가적·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지식정보라는 방법론적 특성이 전문 지식 활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운영 전략이 좀 더 발전적인 최고위과정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고찰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헌지식정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및 바람직한 운영 방법 등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최고위과정의 운영 현황 조사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등 최고위과정의 설치 목적과 설치 배경, 교과목 구성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조사하였다. 특히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운영 실태, 교과과정 구성, 학생 구성을 상세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제 1 기 학생 7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고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기대하는 특성, 문헌지식정보 과정에 대한 이해, 기대하는 특성, 참여하면서 느낀 의견, 향후 발전 방향을 조사하였다.

III.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의 종류와 운영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최고위과정은 고등교육법 제 26 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개강좌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 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서울대학교 2004) 2011 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개강좌 중 일반인 대상의 공개강좌와 외국인 대상의 어학 강좌, 음악대학의 음악 실기과정을 제외하고 최고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은 약 31 개이다. 이 중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최고위과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과정 수는 집계가 어려우며 아마도 40 개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 2011) 개설 연도를 보면 1972 년에 개설된 행정대학원의 ‘국가정책과정’을 시작으로 1971-1980 년에 2 개, 1981-1990 년에 1 개, 1991-2000 년에 10 개, 2001-2010 년에 18 개 개설되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설 기관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한 것이 29 개이고 연구소(경제연구소)와 지원시설(중앙도서관)이 각각 1 개이다. 12 개 과정은 연 2 회 입학생을 모집하고 19 개 과정은 연 1 회 모집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개강좌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공개강좌는 2 년마다 평가를 하며 평가 항목은 1) 강좌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2) 강좌운영 방법의 적절성, 3) 강좌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6) 산학협동 기여도, 7) 기타 수강생 만족도 등이며 2 회 연속 C 등급을 받으면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서울대학교 2004) 또한 2 년 이상 연속해서 개설하지 않을 경우 공개강좌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서울대학교 2004)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열된 최고위과정의 주요 내역은 표 1 과 같다.

표 1.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공개강좌로서의 최고위과정(서울대학교 2011)

번호	명칭	주관기관	창설연도	기간	비고
1	국가정책과정	행정대학원	1972	6 개월	
2	최고경영자과정	경영대학	1976	6 개월	연 2 회
3	최고산업전략과정	공과대학	1989	6 개월	연 2 회
4	고급금융과정	경영대학	1992	6 개월	
5	교회음악지도자과정	음악대학	1993	12 개월	연 2 회
6	음악실기과정	음악대학	1993	12 개월	연 2 회
7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행정대학원	1995	6 개월	
8	임상약학교육과정	약학대학	1995	4 개월	연 2 회
9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법과대학	1996	4 개월	
10	식품 및 의식산업 보건최고 경영자과정	보건대학원	1996	9 개월	
11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보건대학원	1997	6 개월	
12	글로벌리더십과정	국제대학원	1999	4 개월	연 2 회
13	해양정책 최고과정	자연과학대학	2000	6 개월	
14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환경대학원	2001	6 개월	
15	도시환경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	환경대학원	2001	6 개월	
16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경제연구소	2001	6 개월	연 2 회
17	미래융합기술과정	공과대학	2002	6 개월	
18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자연과학대학	2002	6 개월	연 2 회
19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생활과학대학	2002	9 개월	
20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공과대학	2003	8 개월	
21	법대최고지도자과정	법과대학	2004	6 개월	
22	최고농업정책과정	농업생명과학대학	2004	6 개월	연 2 회
23	최고간호관리자 과정	간호대학	2004	6 개월	
24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공과대학	2005	12 개월	
25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인문대학	2007	18 주	연 2 회
26	의약품산업의학 고위자과정	의과대학	2007	4 개월	
27	의약품개발 지도자과정	약학대학	2007	4 개월	
28	고급임상약학 프리셉터 교육과정	약학대학	2008	4 개월	연 2 회
29	식품영양산업 CEO 과정	생활과학대학	2009	9 개월	
30	나노융합 IP 최고전략과정	공과대학	2010	6 개월	연 2 회
31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중앙도서관	2010	9 개월	

IV.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특성과 운영

1.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목적과 설치 배경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계획서에 제시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세계 환경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최고지도자라면 변화혁신을 위해서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전략적인 감각, 치밀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전통적 지식을 재해석해내고, 새로운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본 과정은 국내외 최고 문헌지식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앞장서서 지식정보의 보존과 유통 및 창출을 체계적으로 일구어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고전과 최첨단 지식정보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또 질 높은 국내외 문헌지식정보의 계보를 섭렵하고 새로운 지평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 최신 정보를 상호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진작시키고, 지식정보의 국가적·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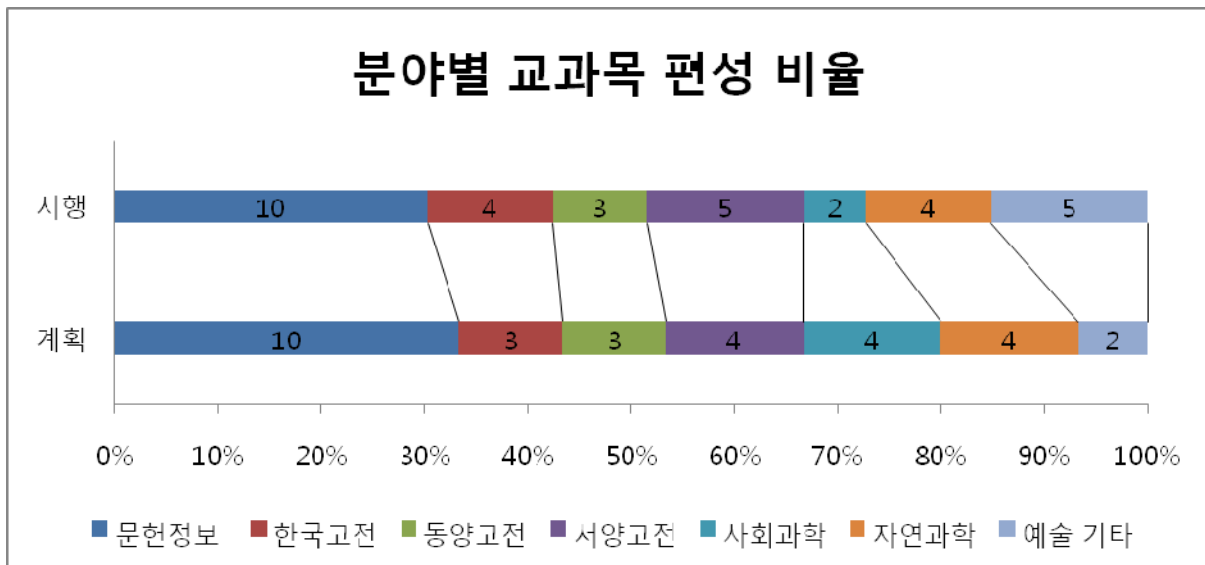
2.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교과과정

최고위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오리엔테이션과 논문 지도 등에 6 시간, 강의 30 시간 그리고 36 시간과는 별도로 국내외 현장 견학을 배정하고 있다. 30 시간의 강좌는 총론 성격의 강의 “문헌지식정보의 흐름과 전망(10 강좌)”과 각론 성격의 “문헌지식정보의 서지적 접근(20 강좌)”으로 구분된다. 문헌지식정보의 서지적 접근은 다시 1) 한국 고전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3 강좌), 2) 동양 고전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3 강좌), 3) 서양 고전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4 강좌), 4) 사회과학 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4 강좌), 5) 자연과학 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4 강좌), 6) 기타 문헌들과 그 서지의 흐름 (2 강좌)으로 계획하였다. 각 강의 구분별 강의 예정 강사와 제목에 대하여 최대 50% 정도의 여유분을 준비하였고 강의를 운영하면서 시간 조정 및 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 초빙하지 못한 강의는 차기 최고위과정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획된 강의와 실제 운영된 강의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제 운영된 교과과정은 강의 “문헌지식정보의 흐름과 전망”이 10 강좌로 계획과 동일하나 각론 성격의 “문헌지식정보의 서지적 접근”은 23 강좌가 시행되었다.

총론 강의에는 지식정보의 개념, 글쓰기, 독서, IT 기술 변화에 따른 출판의 변화, 저작권 등이 강의되었다. 각론 성격의 강의 중 한국 및 동양 고전 그리고 서양 고전에 대한 강의가 14 개, 자연과학 등에 관한 강의가 8 개로 구성되었다. 계획서상의 각 분야별 편성 시간과 실제 시행된 시간 비율은 제 1 도와 같다.

문헌지식정보의 흐름과 전망 분야 10 개의 강의를 보면, 문헌지식정보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한 강의(3), 출판 기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1), 디지털 미디어 출판(3), 저작권 (1), 실용 글쓰기 강의 (1), 독서에 대한 강의(1)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도. 학문 분야별 교과목 편성 비율

3.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운영

중앙도서관장이 주임교수를 맡고 중앙도서관 및 대학본부 직원들이 부주임교수, 자문교수 및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 강사는 총 33 명이였다. 서울대 교수 24 명, 외부 강사 8 명이 맡았다. 외부 강사 중 1 명을 제외하고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강사였다.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강사 32 명의 전공과목 구성은 문헌정보학 3 명, 문헌정보학을 제외한 인문학 21 명, 사회과학 2 명, 자연과학 및 공학 5 명, 예술계 전공 1 명이였다.

원우회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우회는 6 개조로 편성하여 논문작성과 원우회 활동을 하고 있다. 골프, 등산 분야의 취미활동 동우회가 조직되어 과정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문화 활동 동아리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V.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제 1 기 학생 7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고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기대하는 특성, 문헌지식정보 과정에 대한 이해, 기대하는 특성, 참여하면서 느낀 의견, 향후 발전 방향을 조사하였다. 27 명이 참여한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일반에 대한 의견

- 1)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에 입학한 목적은;
 - ① (2 명) 경영에 대한 성공 사례를 듣고 지식을 얻고자,
 - ② (11 명) 문헌 검색 등 연구 학습의 방법을 얻고자,
 - ③ (6 명) 각 분야 지도자와의 인맥 형성,
 - ④ (0 명)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리뷰와 분석,
 - ⑤ (8 명) 앞으로 발생할 미래 환경에 대한 준비 등으로 집계되었다.
- 2)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이 다른 최고위과정과 다른 차별성은;
 - ① (5 명) 강사가 학술 문헌 지식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② (3 명) 문헌 검색 등 연구 학습의 방법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③ (1 명) 참가자의 수준이 학자 중심이어야 한다.
 - ④ (10 명) 다양성, 보편성이 특징이어야 한다.
 - ⑤ (6 명) 과정을 마친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 3) 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가중치에 대한 평균은;
 - ① (5 / 10 점) 일반적인 경영 학습
 - ② (5 / 10 점) 문헌지식에 특화된 학습
 - ③ (5 / 10 점) 친목과 인맥 형성
 - ④ (5 / 10 점)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 ⑤ (3 / 10 점) 기타 (세계문헌정보 탐색 등)
- 4) 과정 종료후 계속하고 싶은 활동은 (복수 응답);
 - ① (14 명) 6 개 조별 모임을 계속 하고 싶다.
 - ② (14 명) 골프, 등산 등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③ (12 명) 동문회 모임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 ④ (11명) 송년회 신년 하례 등에 참석하겠다.
- ⑤ (12명) 월례 또는 분기별 모임을 한다면 참석하겠다.

기타 의견 (봉사활동 추가 요청, 독서회 발족요청, 조찬 모임)

2. 교육 강좌에 대한 의견

1) 문헌지식정보의 흐름과 전망 부문

- 실제 문헌과 정보 등이 집약되어야 표현되는 총체인, 글쓰기를 위한 강의는 단계별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가 요청되어짐.
- 강사진을 수강생중에서도 검토하여 보편성 있는 공통의 강의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과목 선정요망.

2) 문헌지식정보의 서지적 접근

- 다양성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됨.
- 난이도가 높아 강의 집중에 어려움이 피력되었지만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기회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음.

3) 추천 강의

도서관, 문헌지식정보 허브

글쓰기의 기술

독서치료 이야기

저작권법의 국내외 사례

우리역사 다시 보기

종의 기원과 진화론

꾸란과 이슬람의 이해

목민심서와 한국목민학의 계보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

물질과 정보

반 고흐

지식의 저주

20세기 도시와 건축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3. 과정외 활동에 대한 의견

-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업 방문에 대한 의견:

도서관의 직접 searching 의 기회 제공 요망, 교환방문 행사의 만족도가 높음.

- 2) 기타 친목 활동에 대한 의견:

여성 원우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 대두

문헌지식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개설 및 참여

4. 개선 요망 사항

- 1) 문헌정보 최고위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점은 (복수 응답);

- ① (5명, %) 분임 토의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
- ② (10명, %) 조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면 좋겠다.
- ③ (9명, %) 문헌정보학 전문성이 강화되면 좋겠다.
- ④ (6명, %) 3교시 활동 등 친목 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⑤ (10명, %) 성공적인 경영 사례 발표가 추가되면 좋겠다.

기타 의견 (예술, 문화, 인문학분야의 내용 보강요망)

VI.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발전 방향과 전망

1. 문헌지식정보의 중요성

문헌지식을 통한 문제해결은 개인이나 회사의 학술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지식창조와 저술활동이 쉬워지면서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식의 양적 팽창으로 선택의 어려움이 커지게 되고 중요한 지식의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있어 지식의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체계적인 검증과 유통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온라인 상의 검색 시스템과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 최고위 과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와 기업에서 지도층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식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다. 지식의 습득에 대한 요구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지식을 습득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개인 차원의 학습 방법으로 매스미디어, 서적을 통한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있는데 특히 쌍방향 교통신능 가능한 방식의 인터넷 정보교환은 지식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로 결합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집단 차원에서의 지식 습득 노력은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 교육, 평생 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다. 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집단 학습 프로그램의 특수한 형태로서 비슷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적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3.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

문헌지식정보는 직종과 분야에 무관한 공통 영역의 학문이기 때문에 최고위과정의 지원자에게 특정 분야에 집중하거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를 요구로 하는 사람에게 문헌지식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본 과정의 운영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본 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과정 운영의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강의에서 강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토론이 시도되기는 하였지만 다수가 강의실에서 토론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성숙된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분임 토의 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개의 조로 구분된 것이 일부 조에서는 조별 모임을 통하여 분임 토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조도 있어 각 조별 리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9 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5. 과정을 마친 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제 1 기 수료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문회 활동이 특별히 중요하고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활동 뿐 아니라 학술활동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최고위과정 후배들에게도 좋은 전통이 만들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VII. 고찰

1. 최고위과정의 종류, 정의 및 목적

최고위과정은 학부나 일반/특수/전문대학원과 별도로 대학원 개념이 아닌 비학위 과정으로서 주로 실용적인 학문분야에 개설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4; 전병준 2006). 일종의 평생교육과정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가장 최근의 추세를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저명 인사나 기업, 공공기관, 예술가, 정부, 시민단체 등의 고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은 다양하다.(전병준 2006; 익명 2008) 대학으로서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과 학사 운영이 자유롭고,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입학이 비교적 쉬우며 실용적인 학문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은 1970 년대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시작한 후 2006 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7 개 대학이 총 283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박주연 2007) “대학은 권위와 명예와 간판을 팔면서 돈을 벌고, 수강생은 값비싼 등록금을 내는 대신 학위나 학벌, 인맥을 얻는다.”는 비판도 있으나 대학이나 지원자 모두에게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권리이고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할수 있는 커뮤니티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익명 2008)

2. 최고위 과정의 현황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31 개의 최고위과정 중 최근 10 년간 개설된 과정의 수가 18 개 인 자료에서 보듯이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최고위과정을 개설 또는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원자가 부족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지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과정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고위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이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 연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간부급 인사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전병준 2006)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 교육비를 부담해주고 평생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자비로 지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최고위과정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보인다.

3. 최고위 과정의 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설되는 최고위과정은 과거와 같이 경영 일반에 대한 강의나 정책 개발에 대한 강의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전문화된 강의와 보편적인 강의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에 최근 10 년간 개설된 최고위과정을 보면 경영 일반에 대한 과정은 2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약품, 패션, 식품, 안전관리 등 직종별로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에서 볼 때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은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직업군에 집중하지도 않고, 경영 일반에 대한 과정도 아니면서 예술이나 인문학 등 보편적인 교양 과정도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을 개설한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공통된 인식의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에 지원한 사람들의 지원 동기를 보아도 이런 경향을 알 수가 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참여 동기를 보면 문헌검색 등 학습 연구 방법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미래 환경에 대한 준비가 목적인 사람이 많은 반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또는 타인의 성공 사례를 듣는 목적은 적었다. 참여자의 입학 목적이 서로 다르고 기대하는 차별성의 종류도 다양하여 전문성과 보편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기대감은 과목 구성에 대한 요구 성향도 다양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헌지식에 특화된 학습에 대한 가중치가 높기는 하였으나 학습 방법 자체에 대한 수업보다는 다양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일반적인 경영 학습과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4. 문헌정보 최고위과정의 차별성

본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크게 분류하면 문헌정보, 인문 교양, 경영의 3 방향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문헌정보는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지만 도서관, 출판, 정보검색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헌지식의 본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문 교양에 중점을 둔다면 인문학 최고위과정이나 예술 분야의 최고위과정과의 차별성이 감소한다. 참가자의 상당수가 기업 또는 자영업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과 무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영대학 주관의 경영자 과정이 아니라 문헌지식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결국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최고위과정의 성격 상 논문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논문을 쓰는 것은 일반 수필이나 자서전을 쓰는 것과는 달리 논리가 정연해야 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와 근거는 경영이나 학술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훈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며 관리하고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타 분야의 최고위과정과는 달리 본 과정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기술지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과정의 특성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에 대한 참여자의 공동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의 요망 사항으로 조별 활동의 활성화, 문헌정보학의 전문성 강화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강의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질문과 토의에 참여하여 학구적인 성향이 비교적 강한 사람들이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과목 편성에 대한 제언

교과목 목록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① 도서 자료의 분류 및 체계적 관리 등 문헌정보학에 대한 강의. ② 논문 작성,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전문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능력 교육, ③ 동양 및 서양 역사에 대한 강의. ④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의 실태 및 운영,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실태 등.

내용이 어렵고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즉 난이도가 높은 강의가 많아 이해가 어려웠다고 하기도 하면서 다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강사의 발굴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하여 수강생 중에서 강사를 찾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문헌과 정보 등이 집약되어야 표현되는 총체인, 글쓰기를 위한 강의는 단계별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실제 글쓰기 워크숍 등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6.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른 최고위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에서도 국내외 현장 방문에 참여도가 높았으며 이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본 과정에서는 도서관 방문과 연구소 방문 등을 통하여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 본 과정의 현장 답사 과정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정 종료후의 계속 활동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조별모임을 계속하고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 등이 다른 최고위 과정에 비하여 차별화되지 않았고, 지식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독서회, 공연관람, 초대 강연 듣기 등을 통하여 지식문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 2 기, 3 기 최고위 과정이 개설 운영되면서 추가되고 추천된 강의를 제 1 기 동문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게 되면 선후배간의 공통 주제도 되어 효율적인 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다. 이런 활동은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동문회, 신년 및 송년모임, 월례회 또는 분기별 모임을 통하여 학술 문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본 과정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III. 결론

국내 최초로 개설된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헌지식정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및 바람직한 운영 방법 등을 알아 보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식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특히 고급지식정보의 선별과 활용은 현대 전문인, 경영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정확한 지식 정보를 생산, 활용, 공유하는 것은 현대 지식사회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의 목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전문인들의 이해 내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헌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며 지식을 재생산하여 현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헌정보 습득을 통하여 검증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서 참여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운영 방법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내용과 현행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과 운영 전략이 좀 더 발전적인 최고위과정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고객 참여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한 검증된 지식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문 경영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때 문헌지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문헌지식정보에 대한 요구가 보다 성숙되어 지식 팽창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검증된 지식이 생산되고 출판되며 활용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위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고위과정이 과정 종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 활용의 참 뜻이 구현되게 되기를 바란다.

IX. 참고문헌

- 김용근 (2004).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학술정보의 활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1-30.
- 박주연 (2007). "간관 중시 사회맞이 '학벌 기획판매' : '돈벌이' 나선 대학들 특수대학원·최고위과정 앞 다투어 만들어 입학생 유치." 뉴스메이커 16(35): 52-53.
- 변우열 (2003).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17.
- 서울대학교 (2004). 공개강좌 규정.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2004). 공개강좌규정시행세칙.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2011).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Retrieved March 23, 2011, from <http://www.snu.ac.kr/edu/edu0501.jsp>.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 문헌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개설 신청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 이해두 (2000).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과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8(2): 93-112.
- 익명. (2008). "re: 최고경영자 과정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싶습니다. ." Naver 지식in Retrieved Feb. 6, 2011, from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4&docId=31548843&qb=7LWc6rOg7JyE6rO87KCV&enc=utf8§ion=kin&rank=6&search_sort=0&spq=0.
- 전병준 (2006). "대학부설 최고경영자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9(2): 245-271.
- Yook, K.-A. (2008).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dels for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y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Daejeon, Paichai University. **PhD**: 233.